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로봇릭스 생태계 구축과 AI(인공지능) 고도화를 통해 인류의 진보를 선도하는 'AI 로봇릭스' 전략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대중 앞에 처음 선보였다. 특히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로봇릭스와 퍼지컬 AI 분야에서의 전략과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하드웨어와 이동성 중심의 로봇릭스를 넘어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한 인간 중심 AI 로봇릭스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2028년부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포함한 주요 제조 공장에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틀라스를 비롯해 로봇릭스 플랫폼 로봇을 연간 3만대 생산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놴다. 단순 자동화 제조사를 넘어 '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인간에 가까운 보행능력” AI·로봇릭스 미래 밝혔다

일하는 'AI로봇 시대' 개막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개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번 CES 2026에서 AI 로봇릭스 생태계의 핵심이 될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스팟(Spot), 스트레치(Stretch) 등 여러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해 안전 확보와 물류 운반의 효율성 증대 등 실질적 성과와 적용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은 미래 제품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작된 초기 모델로 다음 세대 로봇 개발에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 모델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 현장에서 안전한 자율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그동안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 학습 능력과 어느 작업 환경에서나 적용 가능한 유연성이 탑재돼 실제 제조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56개의 자유도(DoF)를 갖춰 대부분의 관절이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했으며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어 주변 감지가 용이하다.

또 최대 50kg(약 110파운드)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2.3m(약 7.5피트)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내구성이 뛰어나 -20℃에서 40℃(-4℉~104℉)의 환경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고 방수 기능을 갖춰 세척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자체 취급부터 정밀 조립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가장 큰 퍼지컬 AI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대량 생산해 산업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목표를 세웠다.

△SI 로봇릭스 상용화 선도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에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망 흐름 최적화에 나선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보스턴다이나믹스와 손잡고 아틀라스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외신, 아틀라스에 잇단 호평

해외 매체들이 현대차그룹이 CES 2026에서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집중 조명하며 호평하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에서 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 중 하나인 미국 AP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ES 2026에서 공개된 주요 로봇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아틀라스의 방수기능과 배터리 자동 교체 기능을 거론하며 “올해는 보

스턴 다이나믹스의 오랜 테스트를 거친 아틀라스가 세련된 제품으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보도채널 유로뉴스도 “처음으로 공개 시연된 아틀라스는 더는 프로토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작업을 줄여주고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인간-로봇 협업환경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신들은 아틀라스가 시연에 그치지 않고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점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한편 아틀라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CES 현장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는 등 올해 CES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CES 2026서 ‘아틀라스’ 공개 전략·성과 등 대거 공개…글로벌 기술 리더십 재확인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해외 언론들도 주목

AI 로봇릭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봇릭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의 틀을 넘어 AI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하는 엔비디아(NVIDIA)와 지난해 1월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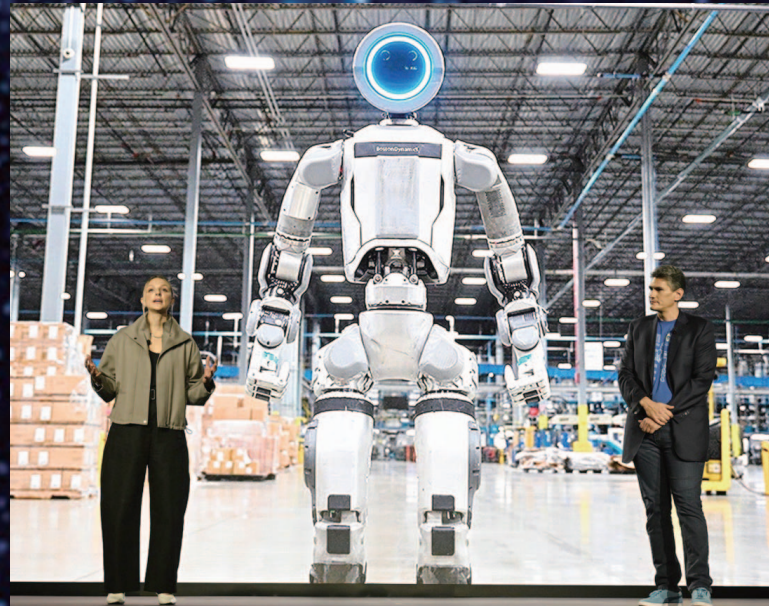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퍼지컬 AI 비전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최적인 파트너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그룹사별로 현대차·기아는 제조 인프라, 공정 제어, 생산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정밀 액추에이터 개발을 담당하며 현대글로벌비스는 물류 및 공급

Partnering Human Progress



현대차그룹은 최근 CES 2026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왼쪽부터) 보스턴다이나믹스 매리 프레인 스팟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 딥마인드 캐롤리나 파라다 로봇릭스 총괄, 보스턴다이나믹스 알베르 로드리게즈 아틀라스 행동 정책 담당,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버트 플레이어터 CEO,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보스턴다이나믹스 아야 더빈 휴머노이드 응용전략 담당, 보스턴다이나믹스 잭 채코우스키 아틀라스 개발 총괄, 현대차그룹 이용재 제조솔루션본부 및 보스턴다이나믹스 혁신담당 상무, 현대차그룹 우순현 GSO 미래전략담당 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현대차그룹은 최근 CES 2026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왼쪽부터) 보스턴다이나믹스 아야 더빈(Aya Durbin), 휴머노이드 응용전략 담당, 보스턴다이나믹스 잭 채코우스키(Zachary Jackowski) 아틀라스 개발 총괄이 발표하는 모습.